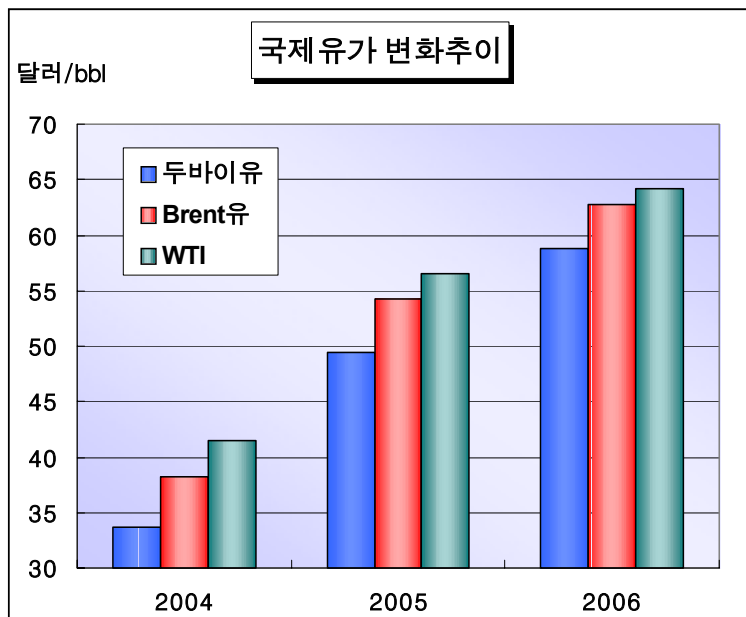


Dubai유, 2004년 대비 74.8% 폭등

WTI 54.9%에 Brent유 64.4% 급등 ... 중국 수요 급증으로 수급타이트

최근 국제유가가 초강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도입하는 원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동산 원유가격이 2004년 이후 다른 유종보다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4월19일 기준으로 주요 유종의 2006년 평균 현물가격을 2004년과 비교하면 중동산 원유의 가격동향을 대표하는 두바이(Dubai)유는 무려 74.8% 상승한데 비해 Brent유는 64.4%, WTI(서부텍사스 중질유)는 54.9% 오르는데 그쳤다.



두바이유는 2004년 배럴당 평균 33.64달러에서 2005년에 49.37달러로 46.8% 오른데 이어 2006년 평균 58.79달러로 2005년보다 19.1% 상승했다.

반면 WTI 현물가격은 2004년 평균 41.43달러에서 2005년 56.46달러로 36.3% 오른 뒤 2006년에는 64.18달러로 13.7% 올랐다.

Brent유 현물가격도 2004년 38.18달러에서 2005년 54.30달러로 42.2% 올랐고 2006년에는 62.77달러로 15.6% 상승했다.

두바이유의 가격 상승률이 다른 유종보다 높음에 따라 2004년 배럴당 7.79달러였던 WTI와 두바이유의 가격

차이는 2006년 5.39달러로 좁혀졌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중동산 원유를 많이 쓰는 중국의 수요가 늘어나는 등 국제적인 석유 수급상황이 타이트해지면서 WTI나 Brent유에 비해 가격이 낮은 두바이유의 가격 상승폭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Brent유도 WTI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WTI와의 격차를 줄였으나 4월 들어서는 평균 68.87달러에 달해 68.74달러에 그친 WTI를 앞질렀다.

나이지리아에서 반군 문제로 하루 56만배럴에 달하는 원유공급 차질 현상이 2개월 가량 지속되면서 아프리카산 원유를 많이 쓰는 유럽에서 유럽산 원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6/04/21>